

만남

2020년 6월
통권 18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荇蹄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예수 성심과 사랑-----	3
공동체 모임 자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7
기도하는 삶	-----	10
지혜로운 삶	-----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6
전례	-----	17
영화 소개	-----	18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19
평신도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6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마음의 길

고통 받는 이들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성심께 자신을 내어 맡겨 생명의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성심과 사랑

사랑이란 내가 지닌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오곡백과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주십니다(마태 6,25-34).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아드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요한 3,16.35-36).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여 그 무엇으로도 막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의 숨결, 즉 생명에서 나온 하느님의 자녀요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하느님(인간생명의 근원)께로 되돌아가야 할 존재, 즉 피조물 중에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당신의 성심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지 않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을 보라.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는지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쳤거늘 너희에게 또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으랴.”

1675년 6월 성체축일 8부 중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 수녀님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의 심장을 가리키시며 “보라, 사람들을 이렇듯 사랑했고, 그들에게 이렇듯 큰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 오직 배은망덕만 당하는구나. 내 성심은 무관심, 무례를 참고 때로는 특별한 사랑의 유대로서 내 성심과 밀접히 결합된 이들로부터 이 모든 능욕을 당하는구나.”라고 애달파 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보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을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덕의 근원이요, 행복의 원천이자 영원으로부터 스스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분, 그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당신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샘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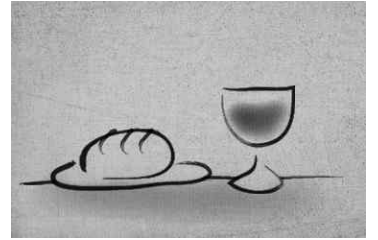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의 응답은 당연히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피와 땀을 쏟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예수 성심의 그 고귀한 사랑으로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요한 6,51-58)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4장 “떡과 술의 형상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은총과 더불어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가 충만하게 하소서.
- ❖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6 51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 6 57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거부감은 있습니다. 성체 신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반발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 역시 상식과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지요?

성체는 상식이 아닙니다. 성체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만 영성체를 통해 접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은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체는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만남을 강조하시고자 ‘살과 피를 섞는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때마다 살과 피를 섞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체를 모셨더라면 ‘그만큼 살아 있는’ 만남이 되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면 성체는 다만 작은 밀떡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모르면 ‘하느님의 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는 ‘살과 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체를 모시라는 당부입니다. 영성체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4장 “떡과 술의 형상에”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49. 생명을 살리는 농업 지켜내기

하느님께서서는 농부이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어떠한 표현보다도 정겹고 포근합니다. 흙빛 얼굴, 억센 팔뚝,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사이 넉넉한 웃음. 밥을 짓는 농부님, 아니 밥이 되어준 농부님들을 떠올립니다. 농부는 자신의 소중한 소출을 먹고 힘차게 살아갈 누군가를 떠올리며, 길이든 바위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루카 8,4-8). 어리석게 보이는 참된 지혜, 무모한 듯 느껴지는 참된 용기, 제 살을 깎아 남을 먹이는 참된 사랑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농부이시듯, 농부는 하느님입니다.

“농민은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인간과 자연이 협력하여 하느님 창조질서에 가장 친밀하게 동참하는 생명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세계화의 진행으로 농촌 공동체는 파괴되고, 농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인 쌀까지 지난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완전 개방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16년 제21회 농민주일 담화문).

농민이 울고 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가뭄에 타들어가는 마음을 몰라주어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여름 땀별에 녹초가 되어버린 몸뚱이를 보듬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피땀이 같은 농작물을 그저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쁘게 생명을 품은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좋을 따름입니다. 사회가 매일 그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농사(노동하는 인간, 21항 참조)를 짓는 보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농민이 울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고 때로는 소멸되어 버리는 육체 노력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자신들을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노동하는 인간, 21항) 농민이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한낱 저급한 돈벌이의 논리로 설명하려는 가진 자들의 횡포 앞에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절대 규칙이 되어 버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복음의 기쁨, 56항 참조)이 기가 막혀 농민이 울부짖습니다.

더 이상 농민이 피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하느님을 닮아 생명을 가꾸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농민이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 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입니다.

50. 연대성의 의미

인간 존재가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공동선 이용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동의 참여가 개인 차원이나 작은 집단 사이에서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돼 상호 의존성이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연대성’(Solidarity)이라고 부릅니다.

연대성 개념은 ‘전체’ 혹은 ‘전액’을 의미하는 라틴어 ‘solidium’에서 유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대성의 의미는 전체 혹은 공동의 이익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성은 인간들이 깊이 연계해 서로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연대성 개념은 흔히 형제애, 원조, 상호 이해 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 연대성의 개념을 통해 모든 인간이 고유한 인격체이며 동시에 사회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성으로 인해 인간은 서로 도울 때 비로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런 도움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연대성의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그야말로 파격적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연속,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파괴되고 오해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창녀, 세리, 어부, 혁명 당원, 절름발이, 맹인, 고아, 과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삶을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난, 절망,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삶을,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하나가 되신 새 인간으로서 나자렛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연대성과 사랑의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추어 주심으로써 이 관계의 온전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연대성은 그 자체를 초월해, 전적인 무상성, 용서, 그리고 화해와 같은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웃이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간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96항 참조).

51. 현실과 사회교리

신자들조차 교회의 가르침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올바르게 실천하고 가르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신자들이 신앙을 장식품처럼 생각해서 삶의 진지한 문제에서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낙태 반대, 치료 목적을 제외한 인공피임과 피임약 금지, 안락사 반대, 동성 간의 성행위 반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얼핏 보기에 서로 다른 주제 같기도 하고, 하나같이 교회의 가르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교회는 인간이 고통 받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단지 글자로 안 된다고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고통 받고 일그러진 최후의 순간, 바로 그 모습까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모습이고 그렇기에 생명이 소중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죄가 크고, 고통스럽고, 기르기 어려워도 사형과 안락사와 낙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회교리에서 인간의 자유는 제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이 인간 존엄성을 선택하는 자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피임과 동성애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성’(性)이 인간 생명과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관계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성행위와 인공적인 피임은 이 둘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이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피임은 가임기에 성관계를 절제하는 자연피임입니다. 이는 생명과 성을 분리시키지 않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절제와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내가 동성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 쾌락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와 바탕에 깔린 생각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단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교리는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눈과 비추는 거울(최영숙 데레사)

품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의 얼굴을 처음 새기었고
거울에 비추인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를 처음 만났다.
비추는 거울이 있어서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손수 나를 빚으신 하느님의 창조를 확인하며 믿었다.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의 진리와 법칙을 배우가면서 새삼스레 깨닫는다.
보이는 눈 없이는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떤지도 알 수 없으며
세상의 변화도 느낄 수가 없다.

비추는 거울 없이는



나의 모습도 모르고
나를 만날 수도 없으며
나를 발견할 수도 없다.

비추는 거울을 통해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쁜 모습도 추한모습도 거울 앞에서 또렷하게 보게 된다.
은혜로운 주님의 길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 고맙고
비춰지는 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니 신기하다.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신비로운 우주에 내가 설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냥 볼 수 있고
이 평화로운 이웃과 함께 살 수 있고
이 사랑으로 가정을 복되게 이뤄가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길이길이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마태 6,25)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지나친 낭만주의자, 혹은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좀 더 많이 묵상하고, 보다 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월말이 다가와, 내일 당장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엄청난 금액의 자녀들 등록금과 과외비를 납부해야 하는, 어깨가 무거운 가장이 들으면 기가 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심히 관찰해보면, 지극히 평화로워 보이는 산새들 역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 틈바구니에서, 갖은 위험을 감수해가며, 겨우겨우 먹이를 구해가며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느님 나라에 더 우선권과 가치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라 할지라도,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길고도 긴 노후 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연유로 바오로 사도는 “자기 가정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이교도보다 더 몹쓸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십시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는 바는 인간의 일만 생각하지 하느님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은 조금도 없이, 그저 하루 온종일 갖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릇된 인생을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근심과 걱정,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공포심이나 불안한 마음과 더불어 찾고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기에, 그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나머지는 한없이 자비하신 하느님의 두 손에 우리들 인생을 몽땅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체해결 하고자 기를 쓰면, 그분께서 활동하실 여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질문

성당에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일주일에 한 번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쉬는 신자를 방문하는데 같이 다니는 자매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입니다. 사람은 착하고 고지식한 것 같은데, 늘 표정이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서 저도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집안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늘 “세상은 유배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문제인지요? 비슷한 환경의 다른 자매는 늘 환하게 웃고 다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사는데 그 자매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상황이 비슷하게 어려워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그 자매님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도 있지요. 그렇다면 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자기 삶의 힘겨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세상이란 어떤 곳일까요? 그 자매님 말처럼 유배지이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살 만한 곳이란 것을 18세기 목사이자 약물학자인 에드워드 스턴은 “조물주는 병이 있는 곳에 병을 고치는 약을 마련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열대지방에는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 지역에는 키나라는 약용식물이 있어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은 풍토가 음습해서 사람들이 감기나 신경통에 잘 걸리는데 이곳 사람들은 버드나무 껍질을 달여 마셔서 병을 달랜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의 ‘살리신’이란 성분이 바로 아스피린의 원료입니다.

아울러 에스키모인들은 쌀과 채소가 부족해 생선과 육류로 생활하는데 이들은 성인병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등 푸른 생선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못살 곳이 아닌 잘 찾아보면 살 만한 곳이란 것을 에드워드 목사는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살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본당에서 연말에 최고 봉사자를 선발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봉사자’란 부

제목이 붙은 선발대회에서 한 자매가 뽑혔는데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뽑은 심사위원들 말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서 사람들은 그 자매에게 생활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우울해지려고 할 때마다 자기 기분을 달래주는 글을 읽는다며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종이에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십대 자식이 자기가 하고픈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삐쳐서 방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실업자가 아니라 직장인이란 의미이며, 전에 입던 옷을 오랜만에 입었더니 실밥이 터질 듯 꼭 조여 온다면 그것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증거다.

성당에서 뒷자리 신자 분이 엉망진창으로 성가를 불러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은 내 귀가 먹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잠을 자려는데 온몸이 피곤하고 빠근하다면 그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다.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깼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고, 전자우편이 너무 많이 왔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게 관심을 둔 사람이 많다는 것이며,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다면 그것은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거나 식구들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냄새가 심한 양말이 늘 바구니 하나 가득 나온다면 그것은 가족들이 무척 활동적이란 것을 의미하고, 집안 청소가 하기 싫고 집안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노숙자가 아니란 뜻이다.

밤새도록 피 터지게 부부싸움을 했다면 아직은 부부가 힘이 넘칠 정도로 싱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죽도로 밟다면 아직은 내가 기운이 남아돈다는 것을 말한다. 갖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 속상하다면 그것은 아직은 내가 젊다는 증거다.’

요지는 세상을 살맛나게 살려면 살맛나게 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음미해야 하는 것은 적어도 솟아날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살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든 것만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 때일수록 그래도 살 만한 이유를 찾는 것, 나를 살맛나게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벽초 홍명희의 ‘임격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임격정에 나오는 일곱 두령은 모두 출신 배경이 열악했습니다. 백정, 유복자,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출신은 천하였지만 모두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였습니다. 표창 던지는 연습을 하였고, 걷는 연습을 하였고, 활 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병법을 연마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몸을 단련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일곱 두령은 몸이 가진 능력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탐관오리와 당파싸움을 일삼은 양반들은 출신 배경은 좋았습니다. 양반이었고, 높은 벼슬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글은 읽었지만 글의 의미와 뜻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몸을 단련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즐겼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과 함께 합니다. 현대인은 기계와 기술에 의존하면서 몸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기능은 구글과 페이스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걷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화폐와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열등감은 약해진 몸으로 들어옵니다. 생의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스스로 몸을 단련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새로운 형태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신자들을 종종 봅니다. 머리로는 하느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신앙인들 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온전하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뒤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다.’ 저는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기도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받아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예전에 읽은 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실 때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시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믿으신 것입니다.”



❖ 6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유스티나	홍 영 숙	베드로	김 부 남
13일	안토니오	김 현 규		이 영 원
19일	율리안나	김 효 정		최 윤 석
				김 상 미
24일	세레자 요한	김 성 철	파울라	최 영 자
		김 민 규		송 문 규
		남 궁 경		이 민 재
		박 진 태		배 재 현
		최 현 봉	바오로	진 태 근
		박 찬 진		박 종 래
				최 승 진

❖ 6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3일	안토니오	문철주(H) 박일열(H)	29일	바오로	최한우(O)
19일	율리안나	송윤아(H)			임완규(O)
24일	카타리나	고희경(H)			이범이(H)
21일	안셀모	이철민(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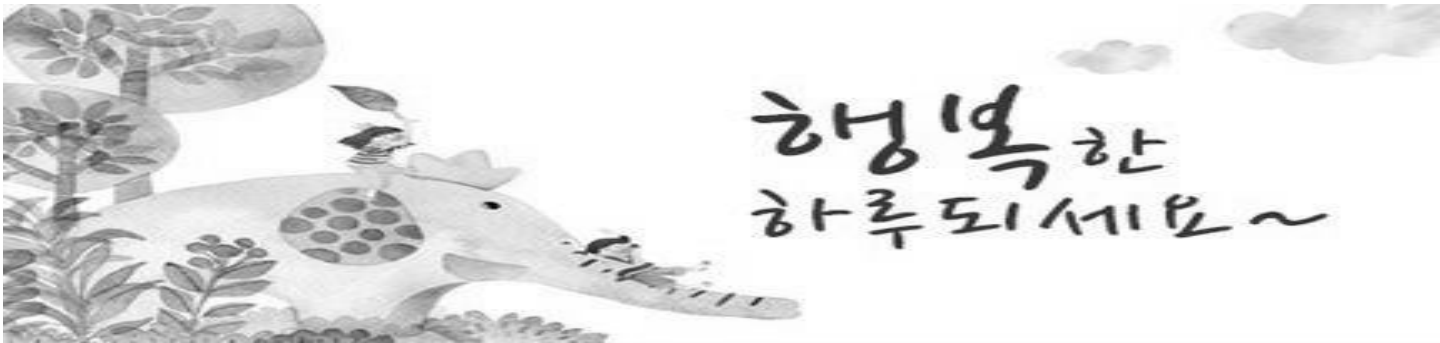
사랑하고 ♥
축하합니다

❖ 6월 성가번호 ❖

6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7일	81	511	500	80
14일	162	214	161	164
21일	20	213	153	202
28일	55	342	170	205

❖ 6월 미사 전례 봉사자 ❖

6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7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14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헬레나)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21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28일	정명옥(살로메) 최성자(벨라데타)	한말조(마리안나) 권지연(안드레아)	주일학교	



영화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오세암’ 등 수많은 동화책을 쓰신 정채봉 작가님은 1993년,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동화 <저 산 너머>를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하였습니다. 집필에 앞서 정채봉 작가님은 김 추기경님과 함께 추기경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북 군위 옹기골 마을로 추억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추기경님께 직접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재를 마친 후 책 출간을 위해 찾아온 정채봉 작가님께 김수환 추기경님은 ‘지금은 남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우니 나 가고 난 뒤에 책으로 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화 <저 산 너머>는 정채봉 작가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이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추기경님이 선종하시고 11년이 지난 후에 영화로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릴 적 이름은 순한이었습니다. 순한의 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한 떠돌이 옹기장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병고 끝에 돌아가시게 되자, 홀로 남은 어머니가 행상을 다니며 힘겹게 늦둥이 아들형제 순han과 동han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생처음 사제 서품식을 보게 된 어머니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어떤 소명을 느끼고 두 어린 아들에게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han은 순순히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만, 순han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han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살아생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록을 찾지 못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김 추기경님의 본가인 광산김씨 종친회는 오랜 시간 조사 작업 끝에 마침내 추기경님의 뿌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머니가 늦둥이 두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랐던 것도 바로 그 뿌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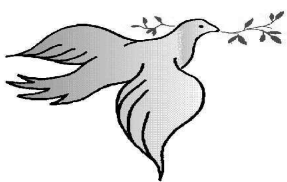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후 추기경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몇 작품 있었지만, 본격 극영화는 <저 산 너머>가 최초입니다. 추기경님은 사제가 되시고 온 생애를 가난한 이웃들과 군사독재와 산업화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추기경님의 평소 염원처럼 영화 <저 산 너머>에서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영성(靈性)’과 ‘동심(童心)’과 ‘자연(自然)’입니다.

생텍쥐페리는 1943년에 발간된 ‘어린 왕자’의 서문에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라 말합니다. 영화 <저 산 너머> 또한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어린 왕자’가 2차 대전 중 발간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과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화가 모든 이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세상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 성심의 은총을 누리는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2. 6월 7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예정이었던 유럽 사목자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3. 6월의 소공동체 모임 여부는 각 소공동체에서 결정해주시길 청합니다.
4. 6월 11일 목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주교좌성당 미사 후 해마다 해오던 성체 거동 행렬은 아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6월 19일 금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며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10시 만남성당에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6. 6월 29일 월요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6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없을 예정입니다. 함부르크 공동체와 지방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Q. ‘평신도’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신도’를 뜻하는 라틴어 laicus는 용어는 백성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희랍어 λαϊκός에서 유래합니다. 이 λαϊκός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일반 백성, 곧 민중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초세기 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성직자가 아닌 성품을 받지 않은 하느님 백성을 지칭하기 위하여 라틴어 laicu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구성원을 표현할 때에는 제자들(discipuli), 형제들(fratres), 그리스도 신앙인들(Christifideles)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laicus(평신도)라는 용어는 성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 이외에도, 온전히 세속 질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Q. 무엇을 통해서 평신도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전과는 구별되는 평신도의 특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사적 측면에서 평신도는 세례를 통해 공통사제직에 부름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사제직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합니다.

둘째, 사도적 측면에서 평신도는 세속 안에서 고유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세속적 성격으로 특징 지워지는 평신도 사도직은 사회적 범위 안에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신학적 교회론적인 내용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평신도는 교계제도의 명목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세속에서 활동합니다.

Q. 교회와 세상을 위한 평신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소명의 독특한 성격을 역설하였습니다. 평신도는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J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Pt.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6월(예수 성심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월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2	화			
3	수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4	목			
5	금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환경의 날, 망종		
6	토	현충일		
7	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8	월			
9	화			
10	수			
11	목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Fronleichnam
12	금			
13	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14	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5	월			
16	화			
17	수			
18	목			
19	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10시 대축일 미사
20	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21	일	연중 제12주일, 하지		
22	월			
23	화			
24	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25	목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단오	연령회 월례회	
26	금			
27	토			
28	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9	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
30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